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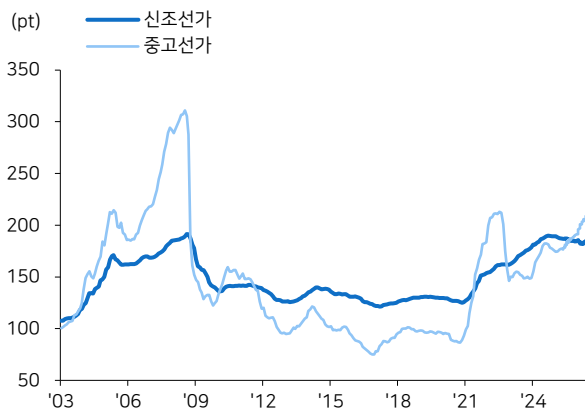


2026. 5. 18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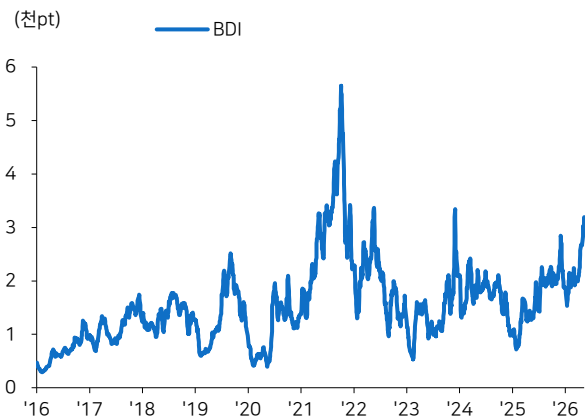
신조선가 184.6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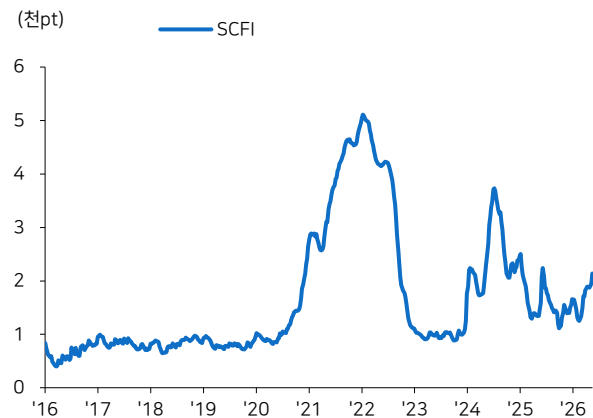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7.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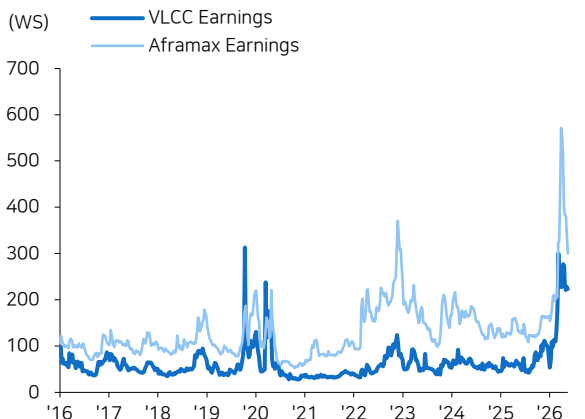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195.0p (+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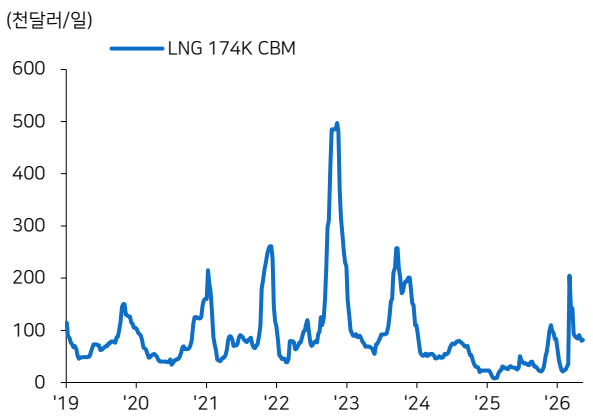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140.7(186.5 WoW)



VLCC Spot Rate 223.0WS (-4.7p WoW)



LNG Spot 운임 82.0천달러 (+2.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U.S. Navy Awards \$856M T-AO 217 Oil Tanker Contract to NASSCO for Pacific Operations (Army Recognition Group)

<https://zrr.kr/eaxloi>

미국 General Dynamics NASSCO가 미 해군으로부터 8억 5,6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여 John Lewis급 신형 군수지원함(T-AO 217) 건조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이번 자금 투입은 2024년 9월 체결된 8척 규모의 블록 구매 계약의 일환으로, 샌디에이고 조선소의 생산 연속성과 숙련 인력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태평양 등 분쟁 지역 내 미 해군 항모강습단에 항구 기생 없이 연료와 화물 및 항공 자재를 적기에 보급할 전망으로 전해짐. John Lewis급 군수지원함은 1980년대부터 운용된 기존 Henry J. Kaiser 급을 대체하며 이중 선체 구조, 자동화 시스템, 현대화된 화물 처리 및 수직 보급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짐.

US LNG project gets \$9.75 billion green light for construction (Upstream)

<https://zrr.kr/Akqp6e>

미국 루이지애나주 카메론 패리시에 건설되는 Commonwealth LNG 프로젝트가 9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FID를 내리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고 보도됨. 사모펀드 Kimmeridge의 천연가스 부문 자회사인 Caturus가 운영하는 이 프로젝트는 총 212억 5,000만 달러의 투자 약정을 확보했으며, Technip Energies가 EPC 계약자로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한다고 전해짐. 연간 최대 950만 톤의 LNG를 수출할 예정인 해당 프로젝트는 EQT, 사우디 아람코 등과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을 체결했고 Mubadala Energy와 CPP Investments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30년 가동 시 연간 3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알려짐.

K 방산, 美 사이버보안 인증 대란 (한국경제)

<https://zrr.kr/Rvdc3G>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부터 도입하는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CMMC)' 제도와 관련해 국내 조선 및 방위산업 기업들의 인증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됨. CMMC는 미국 함정의 MRO 및 무기 체계 수출에 참여하려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필수 보안 인증이나, 현재까지 이를 확보한 국내 기업은 전무하며 중소 협력사들은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해짐. 원청 대기업뿐만 아니라 하청 공급망 내의 단 한 곳이라도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인증 취득에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 인증 기관 설립 등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페루 함정 건조 사업 실전배치 '막바지'...페루 해군·시마 기술진 검증 실시 (더구루)

<https://zrr.kr/JvkDGy>

HD현대중공업이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SIMA)와 진행 중인 함정 현지 건조 사업이 주요 시스템의 공장수락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실전 배치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도됨. 페루 해군과 시마조선소 대표단은 울산 본사를 방문해 상륙지원함 등에 탑재될 항해 및 전투 체계 등 핵심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고 실무 운용법을 익혔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4년 수주한 함정 4척의 설계와 기자재 공급을 수행하며 시마조선소와 협력하는 한편, 자체 개발한 잠수함 모델(HDS-1500)을 앞세워 올해 출범할 페루 차기 정부와 잠수함 건조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중남미 방산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짐.

ABS inks MoU with South Korean heavyweight (Upstream)

<https://zrr.kr/U0NAoU>

미국 선급협회인 American Bureau of Shipping(ABS)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2026 해양기술 박람회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해양 분야의 운영 회복력, 탈탄소화, 디지털 혁신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짐. 양사는 해상풍력, 해상변전소, 소형모듈원전, 해상 우주발사대 인프라, 탄소 포집 및 저장 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한편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생산성 향상, 조선 및 엔진 부문의 제품 믹스 개선 등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7,740억 원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미 해군 정비시장까지 노린다”...부산시, HJ 중공업 앞세워 ‘함정 MRO 클러스터’ 본격화 (문화일보)

<https://zrr.kr/Xno2mL>

부산시가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HJ중공업을 비롯한 지역 조선·방산업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함정 MRO 시장 선점에 본격 나섰음이 보도됨.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90억 원 규모로 부산·울산·경남과 전남이 공동 추진하며, 부산 강서구에 ‘함정 MRO 방산 품질인증센터’를 구축해 핵심 부품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AI 기반 스마트 비파괴검사(PAUT) 로봇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특히 최근 방산 수출의 뇌관으로 떠오른 미국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인증(CMMC) 및 미 해군 함정정비자격(MSRA)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한·미 조선 동맹의 핵심 구상인 ‘MASGA’ 프로젝트 흐름에 발맞춰 대미 방산 수출 공급망을 선점하고 고부가가치 해양방산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